

청년창업의 꿈을 펼쳐라 여수시 '청년몰' 만든다

여수시가 ㈜중앙시장 2층 빈 점포를 활용, 청년창업의 꿈의 공간인 '청년몰'을 만든다.

1975년 만들어진 ㈜중앙시장은 지상4층 규모(면적 6340㎡)로, 지난 1990년 여수국가산단 확장과 수산업 호황기 때는 침구·의류 전문시장으로 160개 점포가 빼곡했던 대규모 전통 시장이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대형마트 등 장과 소비 패턴의 변화로 현재는 빈 점포가 50개가 넘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시는 이같은 점을 감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조성사업' 공모에 지원해 최근 사업대상지로 확정됐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 규모로 국비 7억 5000만원, 지방비 6억원, 자부담 1억5000만원이 재원으로 투입된다.

정부 공모 사업 선정...중앙시장 2층 리모델링 조성 침체된 재래시장 살리고 청년 일자리 활성화 기대



청년몰로 사용될 여수시 중앙시장.

여수시는 중앙시장 2층 66개 점포 중 비어있는 52개 점포를 푸드코트·체험창업·청년벤처 등 청년창업점포 27개와 다목적 공간, 지원공간으로 재울 계획이다.

상인들도 옥상 주차장 설치, 2층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시설 현대화는 물론 상인교육 등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시장 박문규 상인회장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창업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청년몰 사업을 통해 중앙시장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초 '골목형시장육성사업'에 따라 전남상가, 서시장 주변시장 등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여수시 제공〉

/여수=김창화기자 chkim@



GS칼텍스 여수공장 전병호 엔지니어가 지난 17일 여수시 국동 여수보육원에서 명상법을 강의하며 멘토링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GS칼텍스 직원들 청소년 멘토링 호응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

GS칼텍스 젊은 직원들이 보육시설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을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주간 8차례에 걸쳐 여수보육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엔지니어 여름방학 멘토링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GS칼텍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8명의 엔지니어들은 2인 1조로 나눠 야외 활동과 강의 등을 병행하는 멘토링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교양 습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멘토링 봉사활동도 영화 '택시운전사'를 단체 관람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볼링을 치며 마음을 나누는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자립심을 키우는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시간도 계획 중이다.

GS칼텍스 엔지니어들은 지난 2015년 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교실을 시작으로 매년 방학을 이용해 여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지역 학생들의 성장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신임 해양경찰관 166명

여수 해경교육원서 임용식

해양경찰청은 25일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대강당에서 신임 해양경찰관 166명 임용식을 개최했다.

신임 해양경찰관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입교, 8개월간 기본 교육 훈련과정을 비롯해, 관 현지의 원양 항해, 파출소·함정 실습 등 교육활동을 수료했다.

졸업생 중 정민국(27) 순경은 태권도(3단), 합기도(4단), 유도(2단) 등을 익힌 무술인으로, 인명구조 강사 및 생활체육지도사 2급 자격증까지 갖춰 눈길을 끌었다.

또 이윤준(29), 김대관(30), 육재민(30) 순경은 잠수기능사, 수상인명구조요원, 생활체육지도자, 스쿠버 등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은하(여·38) 순경은 지난 8년간 민간 항공 보안요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해경 업무에 활용할 각오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지난 25일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대강당에서 해양경찰관 166명의 임용식이 열렸다.

〈해양경찰청 제공〉



따뜻한 우동 같은 연극 한편 블래요

내달 8일 '우동 한 그릇' 무료 공연

연극을 보며 가족간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여수시는 오는 9월 8일 오후 7시 시민회관에서 가족애를 다룬 연극 '우동 한 그릇' <사진> 공연을 연다.

'우동 한 그릇'은 북해정이라는 우동집을 배경으로 세 모자와 우동집 주인이 펼치는 이야기로, 일본 작가 구리 료헤이의 단편소설 '우동 한 그릇'을 연극화한 작품이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한 그릇의 우동을 주문하는 엄마, 사정을 짐작하고 3인분을 주고 싶지만 모자의 마음이 다칠까 표가 나지 않을 만큼만 얹어주는 주인의 따뜻한 배려가 잔잔함을 더해준다.



공연 입장권은 광무동 예총여수사회, 교통 신나라레코드, 신기동 청음악기, 학동 비엔나레코드 등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연극을 통해 배려와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호텔 매매 임대 교환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지리산 온천지구내, 대형모텔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상 4층, 객실58개
- 전체 리모델링 (6억 투자)
- 연수원 등 기타시설 가능
-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시세/감정가 - 20억, 매매 - 18억 (융자 8억포함)
- 임대/교환 협의 H. 010-3605-5000

산수유/벚꽃/매화축제,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5개월) 영업으로 순수익 4억 가능!

